

광주시, 중·베트남 세계지질공원과 '국제협력 교육'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교육 사진

/광주광역시 시청 제공

빈곤·환경·교육·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실천 과제 담아
초등 4년부터 성인까지 단체 대상...이달부터 연중 운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중국, 베트남 등 세계지질공원들과 협력해 개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교육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연중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심사 당시 권고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교육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201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공동 목표로, 빈곤·환경·교육·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한 17개 핵심 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세계지질공원의 핵심 가치인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 베트남 등의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추진한 국제 공동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각국 세계

지질공원의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빈곤·환경·교육·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교재에는 전세계 지질공원의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 사례가 담겨 있어 목표별 의미를 쉽게 전달한다. 주요 내용은 ▲지질공원의 개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가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의 이해 등이다.

또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스티커 활동을 도입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며 학습할 수 있는 요소를 더해 흥미와 몰입도를 높였다.

이론수업 뒤에는 조별 토론과 발표 활동도 이어진다.

학생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직접 선정해 의견을 나누며, 참여형 학습을 통해 환경·사

회·경제를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게 된다.

광주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1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달부터 연중 운영하며 광주시 수목원·정원사업소 지질공원팀(062-613-7853)으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김희석 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이 프로그램은 세계지질공원 간 협력을 통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참여형 교육을 확대해 시민과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의 가치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기자

국내 최대 원메이크 레이싱 대회 '현대 N 페스티벌' 2026 시즌 개막

현대자동차가 8일부터 10일까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1라운드 경기를 시작으로 '2026 현대 N 페스티벌' 시즌을 개막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 N 페스티벌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개최된 '클릭 스피드

페스티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된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을 계승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싱 대회다.

원메이크 레이싱은 단일 차종끼리 트랙을 달려 드라이버의 실력만으로 승부를 겨루는 경주 방식

을 말한다. 이번 시즌에는 ▲아이오닉 5 N eN1 컵 카(Cup Car, 경주 차량)로 참가하는 '그란 투리스모 eN1 클래스' ▲아반떼 N1 컵 카로 참가하는 '금호 N1 클래스' ▲아반떼 N2 컵 카로 참가하는 '넥센 N2 클래스' 외에도 이번 시즌 새롭게 도입된 ▲아반떼 N2 컵 카로 참여하는 '넥센 N3 클래스' 등 총 4개 등급의 대회를 운영한다.

이들 경주 차량은 N 양산 모델의 PT(PE) 시스템 등 핵심 부품

동일하게 적용한 차량으로 모터스포츠에서도 N 차량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할 예정이다.

올해는 1라운드 개막전을 시작으로 ▲6월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2라운드 ▲7월 인제 스피드웨이에서 3라운드 ▲10월 인제 스피드웨이에서 4라운드 ▲10월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5라운드와 최종 라운드까지 총 6개 라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 N 페스티벌은 높아진 대회

위상에 맞추어 국제 대회와 함께 국내 모터스포츠 문화의 발전을 도모한다. 3라운드는 TCR 아시아와, 4라운드는 TCR 월드 투어 및 TCR 아시아와 공동 개최하며 글로벌 최정상급 TCR 대회와 함께 박진감 넘치는 레이싱 선보일 예정이다.

TCR(Touring Car Racing)은 자동차 제작사가 경주용 차량을 제작해 각 레이싱 팀에 판매하는 형식의 커스터머(Customer) 모터스

포츠 활동으로 현대차는 2018년부터 전세계 고객팀 대상으로 판매를 통해 여러 지역의 TCR 대회에 경주차를 공급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TCR 대회에 출전하는 고객팀을 지원하며 총 5개년 동안 종합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는 7월 11일 ~ 12일 인제에서 개최되는 3라운드에서 대회 최초로 나이트 레이싱과 내구 레이싱을 개최해 레이싱 운영 포맷의 다양화를 꾀한다.

/이유빈기자

토지권원 95.2% 달성! 조합원 모집 신고필!

조합사업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조합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동현대지역주택조합